

시끌벅적 e-스타



“참 신기하네”… 마술 동영상 인기

‘그 많던 것기락의 벌레는 누가 끊었을까?’ 생활 속 마술 따라잡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마술 동영상이 네이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마술에 등장하는 도구는 간단하다. 컵과 면과 단짝 친구 나누 것기락이 주인공. 평범한 것기락에 마술사가 잠시 기합을 넣는다.

‘곧 벌레들을 사라지겠 하겠다’는 자막과 함께 마술사가 것기락을 쑥~ 한 번 훑자 순식간에 벌레들이 사라져 버린다. 마술사는 친절하게 것기락을 앞뒤로 보여주면서 벌레가 확실하게 사라졌음을 확인 시켜준다.

다시 한번 벌레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동영상을 보여 준 뒤 그 비법이 공개된다.

비법은 바로 얻지손가락. 깨끗한 것과

락 한쪽 면에 벌레 그림을 그려 준 뒤 염지를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것기락을 뒤집어 한쪽 면만 보여주는게 포인트다. 이 때 최대한 닮은 모습의 벌레를 세 미리 이상 그려야 확실하게 속일 수 있다.

능숙한 손놀림을 보면 어~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마술이다.

간단하지만 재미있고 신선한 나무 것기락 마술은 지난 24일 첫 선을 보인 뒤 3 만여 네이즌의 클릭 세례 속에 꾸준한 인

기를 얻고 있다.

네이즌은 “신기하네요, 간단해 보이지만 꽤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손 놀림에 감탄합니다”의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술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제발 트릭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즐겨주세요”라는 의견도 올라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용수의 팝스 칼럼

“엄마! 어디에 있어요? 나의 엄마!”

엄마가 제jen 필요해요. 사랑해요.“

홀로 남겨진 아이가 간절히 엄마

를 찾으며 기다린다.

고려인 가수 Anita Choi(안나타 죄이)가 발표한 노래 Mama의 한 구절이다. 어두운 방안에 홀로 남은 아

이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엄마를 애타게 그

리워한다. 러시아의 한인 3세 Anita Choi가 부르는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 Mama는 Anita 자신이 아

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한

다.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간 러시아의 젊은 엄마들

과 엄마를 잃은 아이들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이

곡은, 특히 중간에 흐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언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삶의 현장으로 나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부모로서 제대로 된 양육을 못 해주는 가슴앓이는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아빠의 넓은 가슴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든든한 보호막이며 따뜻한 엄마의 품은 꿈과 희망을 주는 가장 편한 안식처일 것이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훌들리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정서적인 공황 상태가 된다. 다음주면 설 명절이다. 명절은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부부·모자가정을 비롯해, 명절인데이도 가족에게 돌아올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 모든 이들에게 힘든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란 마치 먼 기억 속

고려인 가수 안나타 죄이의 ‘Mama’

돌아올지 모르는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을 애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Anita는 집안에 홀로 남겨둔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자신과 혼례주의의 얼음 땅, 중앙아시아의 소금땅을 일구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어머니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말하고 싶어했는지도 모른다. Mama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맞벌이 부부나 이혼모가 아이를 집에 두고 직장을 나가거나, 다른 곳으로 떠날 때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곡이다. 절박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드러난 허탈감은 현재 러시아 가정의 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비단 머나먼 러시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IMF 이후 드러난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경제 위기는 가장의 실직이나 수입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런 경제적 상황의 여파로 부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부모가 가출하거나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등 가족붕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참고도 1〉

〈참고도 2〉

〈참고도 3〉

〈참고도 4〉

〈참고도 5〉

〈참고도 6〉

〈참고도 7〉

〈참고도 8〉

〈참고도 9〉

〈참고도 10〉

〈참고도 11〉

〈참고도 12〉

〈참고도 13〉

〈참고도 14〉

〈참고도 15〉

〈참고도 16〉

〈참고도 17〉

〈참고도 18〉

〈참고도 19〉

〈참고도 20〉

〈참고도 21〉

〈참고도 22〉

〈참고도 23〉

〈참고도 24〉

〈참고도 25〉

〈참고도 26〉

〈참고도 27〉

〈참고도 28〉

〈참고도 29〉

〈참고도 30〉

〈참고도 31〉

〈참고도 32〉

〈참고도 33〉

〈참고도 34〉

〈참고도 35〉

〈참고도 36〉

〈참고도 37〉

〈참고도 38〉

〈참고도 39〉

〈참고도 40〉

〈참고도 41〉

〈참고도 42〉

〈참고도 43〉

〈참고도 44〉

〈참고도 45〉

〈참고도 46〉

〈참고도 47〉

〈참고도 48〉

〈참고도 49〉

〈참고도 50〉

〈참고도 51〉

〈참고도 52〉

〈참고도 53〉

〈참고도 54〉

〈참고도 55〉

〈참고도 56〉

〈참고도 57〉

〈참고도 58〉

〈참고도 59〉

〈참고도 60〉

〈참고도 61〉

〈참고도 62〉

〈참고도 63〉

〈참고도 64〉

〈참고도 65〉

〈참고도 66〉

〈참고도 67〉

〈참고도 68〉

〈참고도 69〉

〈참고도 70〉

〈참고도 71〉

〈참고도 72〉

〈참고도 73〉

〈참고도 74〉

〈참고도 75〉

〈참고도 76〉

〈참고도 77〉

〈참고도 78〉

〈참고도 79〉

〈참고도 80〉

〈참고도 81〉

〈참고도 82〉

〈참고도 83〉

〈참고도 84〉

〈참고도 85〉

〈참고도 86〉

〈참고도 87〉

〈참고도 88〉

〈참고도 89〉

〈참고도 90〉

〈참고도 91〉

〈참고도 92〉

〈참고도 93〉

〈참고도 94〉

〈참고도 95〉

〈참고도 96〉

〈참고도 97〉

〈참고도 98〉

〈참고도 99〉

〈참고도 100〉

〈참고도 101〉

〈참고도 102〉

〈참고도 103〉

〈참고도 104〉

〈참고도 105〉

〈참고도 106〉

〈참고도 107〉

〈참고도 108〉

〈참고도 109〉

〈참고도 110〉

〈참고도 111〉

〈참고도 112〉

〈참고도 113〉

〈참고도 114〉

〈참고도 115〉

〈참고도 116〉

〈참고도 117〉

〈참고도 118〉

〈참고도 119〉

〈참고도 120〉

〈참고도 121〉

〈참고도 122〉

〈참고도 123〉

〈참고도 124〉

〈참고도 125〉

〈참고도 126〉

〈참고도 127〉

〈참고도 128〉

〈참고도 129〉

〈참고도 130〉

〈참고도 131〉

〈참고도 132〉

〈참고도 133〉

〈참고도 134〉

〈참고도 135〉

〈참고도 136〉

〈참고도 137〉

〈참고도 138〉

〈참고도 139〉

〈참고도 140〉

〈참고도 141〉

〈참고도 142〉

〈참고도 143〉

〈참고도 144〉

〈참고도 145〉

〈참고도 146〉

〈참고도 147〉

〈참고도 148〉

〈참고도 149〉

〈참고도 150〉

〈참고도 151〉

〈참고도 152〉

〈참고도 153〉

〈참고도 154〉

〈참고도 155〉

〈참고도 156〉

〈참고도 157〉

〈참고도 158〉

〈참고도 159〉

〈참고도 160〉

〈참고도 161〉

〈참고도 162〉

〈참고도 163〉

〈참고도 164〉

〈참고도 165〉

〈참고도 166〉

〈참고도 167〉

〈참고도 168〉

〈참고도 169〉

〈참고도 170〉

〈참고도 171〉

〈참고도 172〉

〈참고도 173〉

〈참고도 174〉

〈참고도 175〉

〈참고도 176〉

〈참고도 177〉

〈참고도 178〉

〈참고도 179〉

〈참고도 180〉

〈참고도 181〉

〈참고도 182〉

〈참고도 183〉

〈참고도 184〉

〈참고도 185〉

〈참고도 186〉

〈참고도 187〉

〈참고도 188〉

〈참고도 189〉

〈참고도 190〉

〈참고도 191〉

〈참고도 192〉

〈참고도 193〉

〈참고도 194〉

〈참고도 195〉

〈참고도 196〉

〈참고도 197〉

〈참고도 198〉

〈참고도 199〉

〈참고도 200〉

〈참고도 201〉

〈참고도 202〉

〈참고도 203〉

〈참고도 204〉

〈참고도 205〉

〈참고도 206〉

〈참고도 207〉

〈참고도 208〉

〈참고도 209〉

〈참고도 210〉

〈참고도 211〉

〈참고도 212〉

〈참고도 213〉

〈참고도 214〉

〈참고도 215〉

〈참고도 216〉

〈참고도 217〉

〈참고도 218〉

〈참고도 219〉

〈참고도 220〉

〈참고도 221〉

〈참고도 222〉

〈참고도 223〉

〈참고도 224〉

〈참고도 225〉

〈참고도 226〉

〈참고도 227〉

〈참고도 228〉

〈참고도 229〉

〈참고도 230〉

〈참고도 231〉

〈참고도 232〉

〈참고도 233〉

〈참고도 234〉

〈참고도 235〉

〈참고도 236〉

〈참고도 237〉

〈참고도 238〉

〈참고도 239〉

〈참고도 240〉

〈참고도 241〉

〈참고도 242〉

〈참고도 243〉

〈참고도 244〉

〈참고도 245〉

〈참고도 246〉

〈참고도 247〉

〈참고도 248〉

〈참고도 249〉

〈참고도 250〉

〈참고도 251〉

〈참고도 252〉

〈참고도 253〉

〈참고도 254〉

〈참고도 255〉

〈참고도 256〉

〈참고도 257〉

〈참고도 258〉

〈참고도 259〉

〈참고도 260〉

〈참고도 261〉

〈참고도 262〉

〈참고도 263〉

〈참고도 264〉

〈참고도 265〉

〈참고도 266〉

〈참고도 267〉

〈참고도 268〉

〈참고도 269〉

〈참고도 270〉

〈참고도 271〉

〈참고도 272〉

〈참고도 273〉

〈참고도 274〉

〈참고도 275〉

〈참고도 276〉

〈참고도 277〉

〈참고도 278〉

〈참고도 279〉

〈참고도 280〉

〈참고도 281〉

〈참고도 282〉

〈참고도 283〉

〈참고도 284〉

〈참고도 285〉

〈참고도 286〉

〈참고도 287〉

〈참고도 288〉

〈참고도 289〉

〈참고도 290〉

〈참고도 291〉

〈참고도 292〉

〈참고도 293〉

〈참고도 294〉

〈참고도 295〉

〈참고도 296〉

〈참고도 297〉

〈참고도 298〉

〈참고도 299〉

〈참고도 300〉

〈참고도 301〉

〈참고도 302〉

〈참고도 303〉

〈참고도 304〉

〈참고도 305〉

〈참고도 306〉

〈참고도 307〉

〈참고도 308〉

〈참고도 309〉

〈참고도 310〉

〈참고도 311〉

〈참고도 312〉

〈참고도 313〉

〈참고도 314〉

〈참고도 315〉

〈참고도 316〉

〈참고도 317〉

〈참고도 318〉

〈참고도 319〉

〈참고도 320〉

〈참고도 321〉

〈참고도 322〉

〈참고도 323〉

〈참고도 324〉

〈참고도 325〉

〈참고도 326〉

〈참고도 327〉

〈참고도 328〉

〈참고도 329〉

〈참고도 330〉

〈참고도 331〉

〈참고도 332〉

〈참고도 333〉

〈참고도 334〉

〈참고도 335〉

〈참고도 336〉

〈참고도 337〉

〈참고도 338〉

〈참고도 339〉

〈참고도 340〉

〈참고도 341〉

〈참고도 342〉

〈참고도 343〉

〈참고도 344〉

〈참고도 345〉

〈참고도 346〉

〈참고도 347〉

〈참고도 348〉

〈참고도 349〉

〈참고도 350〉

〈참고도 351〉

〈참고도 352〉

〈참고도 353〉

〈참고도 354〉

〈참고도 355〉

〈참고도 356〉

〈참고도 357〉

〈참고도 358〉

〈참고도 359〉

〈참고도 360〉

〈참고도 361〉

〈참고도 362〉

〈참고도 363〉

〈참고도 364〉

〈참고도 365〉

〈참고도 366〉

〈참고도 367〉

〈참고도 368〉

〈참고도 369〉

〈참고도 370〉

〈참고도 371〉

〈참고도 372〉